

# 『滴天髓闡微』 「傷官論」의 考察研究

이보영\*,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 A Consideration Research on ‘Sangkwan’ in ‘Jeokcheonsucheonmi’

Bo-Young Yi\*, Ki-Seung Kim\*\*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이 연구는 명리고전 이론서 중 『滴天髓闡微』 「傷官論」을 지칭하고 그 외 명리고전에 나타난 과거 상관론에 관한 고찰 연구이다. 원문에서 상관(傷官)에 대한 첫마디는 “상관견관과난변(傷官見官果難辨)”이라 하였다. 정관이라 함은 왕정국가 사회에서 국가의 중책을 맡게 되는 속성을 지닌 인물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해치는 것이 상관(傷官)이니 어찌 소홀히 쉽게 풀이할 수가 있는가라는 엄려가 담겨져 있다. 현대와 달리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관직에 나아가는 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성공할 여건과 기회가 주어지기 어려운 시대에 길흉과 성공의 기준이 현대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즉 과거는 관(官)을 극하는 상관(傷官)은 몹시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 과학사회에서는 관의 극을 향하던 상관의 쓰임이 매우 다양한 곳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하여 본 연구는 고전의 상관론 고찰을 통하여 시대에 맞는 재해석과 활용방법에 대한 확장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제어** 상관론, 적천수, 정관, 명예, 명리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Sangkwan’ in ‘Jeokcheonsucheonmi’ among Myeongri classical theory as a guideline, and is a consideration research on past ‘Sangkwan’ in the rest of Myeongri classical theory. The first words about ‘Sangkwan’ in the original text is that the interpretation is very difficult when Sangkwan looks at ‘Jeongkwan’. When we say ‘Jeongkwan’, it contains the interpretation on the person who should take on the heavy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 the monarchy, and there is a concern about how it can be easily interpreted by neglecting it because ‘Sangkwan’ have a bad effect on ‘Jeongkwan’. Unlike modern times, in the past, there was no other way but to become government officials to be successful socially and accumulate wealth. There should be big difference in standard of fortune and success in an era where success conditions and opportunities were difficult to be given. That is, it was though in the past that ‘Sangkwan’ which has a bad influence on ‘Jeongkwan’ have a detrimental effect awfully. However, in today's scientific society, the use of ‘Sangkwan’ which has a bad influence on ‘Jeongkwan’ has come to light in a wide variety of plac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lay a foundation for the expansion of reinterpretation and utilization methods suitable for the time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classical ‘Sangkwan’.

**Key Words** Sangkwan, Jeokcheonsu, Jeongkwan, Honor, Myeongri

Received 02 Jun 2021, Revised 15 Jun 2021

Accepted 30 Jun 2021

Corresponding Author: Ki-Seung Kim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우리나라 역사에는 신분을 구별하는 반상제도(班常制度)<sup>1)</sup>가 있었다. 양반(兩班)과 상인(常人) 사이에 중간 계층(中間階層:中人)이 있었고, 피지배계층인 상인(常人)과 최하층의 천인(賤人:奴婢) 등으로 이루어졌다. 양반은 피지배계층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배를 가지는 지주이며, 정치적으로 관료이고 지방사회의 지배자였다. 천인 노비의 사회적 신분은 양반에게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어졌다. 서당과 서원, 과거시험이라는 교육제도가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겠다는 제도지만 철저한 신분사회로 과거시험도 신분에 따라 한계가 있어서 양반층으로의 신분상승은 규제되었다. 남성의 권리와 지위 등은 여성들에게 “칠거지악(七去之惡), 삼종지의(三從之義), 부창부수(夫唱婦隨), 여필중부(女必從夫) 등의 말들로 남성을 존대하고 여성을 비하하며 법으로 더욱 엄해진 남존여비(男尊女卑)<sup>2)</sup>사상”도 있었다. 양반들은 언행과 품위를 손상하는 것은 가문과 부모를 욕보이는 불효라 여기었다. 과거 사주명리학에서도 관(官)을 중심으로 관(官)을 귀격(貴格)으로 취급하며, 관인상생(官印相生)을 상하 뒷사람을 모시고 따르는 기운 에너지로 보았다. 그러나 상관(傷官)은 가문을 지키고 부와 명예를 나타내는 관(官)을 극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나쁘게 취급 당하였던 과거는 財官을 중요시 여기었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의 창의력과 개인주의가 중요하고 새로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는 창조하는 시대이다. 상관(傷官)이 있더라도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관(傷官)이 있다고 반드시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

상관(傷官)을 상관견관위화백단(傷官見官爲禍百端)<sup>3)</sup>이라 하여 관성(官星)을 해하고 그로 인한 재앙이 백 가지가 일어난다 하여 貴星이 못 되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식상(食傷)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창조하여 부(富)를 이루게 되고 귀(貴)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산업의 다양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직업이 매우 다양

해지고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이다.

많은 평주를 가진 『적천수(滴天髓)』중에서도 가장 인용도가 높은 것은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이다.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의 「상관론」을 중심으로 송·명대의 대표 명리고전인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 만민영(萬民英)의 『삼명통회(三命通會)』, 장남(張楠)의 『명리정종(命理正宗)』에 나타난 상관론을 살펴볼 것이다. 과거가 관성을 중요시 하였다면 현대는 식상과 재성에 가치를 더 많이 둔다. 상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미래사회는 지능과 생명과학으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의 중요한 별이라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 2. 『滴天髓闡微』 概要

『적천수(滴天髓)』는 통신(通神)과 육친(六親)을 양대 망(網)으로 취하고 천도(天道)로부터 정원(貞元)에 이르기까지 62개 장(章)으로 구성된 명리서(命理書)이다. 음양동생동사설(陰陽同生同死設)이라 하여 天地陰陽의 分化와 三元五行을 반복하여 간지를 음양으로 나누지 않고 오행으로 간단하게 보는 법과 문장의 뜻이 분명한 원리로 풀이해 총론적인 설명을 하였다. 일체의 신살을 배제하고 생극제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육친론(六親論)』, 예선 각 개개인의 운명(運命), 가족관계(家族關係)와 부귀(富貴)·빈천(貧賤)·수요(壽夭) 등, 그 사람의 성정(性情)과 출신(出身)·지위(地位)까지 감명하는 방법을 512개의 풍부한 사주 실례와 사주 해석의 내용<sup>4)</sup> 등 역부를 위주로 보면서 강약을 중시하며 경험에서 나온 간법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적천수(滴天髓)』에 담긴 뜻을 살펴보자면 먼저 적(滴)이란 태극(太極) 또는 여운(餘韻)의 의미를, 천(天)이란 음양(陰陽) 또는 천명(天命)을 말하며, 수(髓)란 오행(五行) 또는 이회(理會)의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하늘이 명한 음양오행의 이치를 담아 구슬처럼 이어서 읊어 배우는 자의 가슴을 적시며 깨끗하게 해주는 책'이라는 의미가 있다.<sup>5)</sup> 『적천수(滴天髓)』에는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 『적천수집요(滴天髓輯

1) 반상제도(班常制度)는 조선시대의 국가, 사회적 신분제도를 통칭하는 말.

2) 남존여비(男尊女卑)는 남성의 권리나 지위 등을 여성보다 우위에 두어 존중하고 여성을 천시하는 사상 및 태도.

3) 임철초(任鐵樵) 著, 『滴天髓闡微』, 論傷官 “所謂傷官見官, 爲禍百端者”, 김기승·김현덕 편역, 『滴天髓闡微』, 다산글방, 2017, p.325.

4) 김기승·나혁진, 『명리학사』, 다산글방, 2017, p.245.

5) 나영훈, 『이회 적천수(상)』, 봉성기획, 2001, 본 책에 대한 교묘하고 서평 참조황보관, 황보관, 『滴天髓闡微』 「何知章」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10 재인용.

要)는 경도(京圖)가 저술한 원문과 유성의(劉誠意)가 주석한 원주가 수록된 것이고, 순치(順治) 15년(서기 1658년) 청(淸)의 상국(相國) 진소암(陳素庵)이 편찬한 것이다.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는 경도가 저술한 원문, 유기(劉基)가 주석한 원주(原註), 임철초(任鐵樵)가 새롭게 주석한 증주(增註)로 이루어져 있다. 중화민국 22년(서기 1933년) 원수산(袁樹珊)과 형원주인(衡園主人) 손씨가 간행하면서 『천미(關微)』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다. 『적천수정의(滴天髓徵義)』는 서락오(徐樂吾)가 편주(編註)하였고 『滴天髓闡微』에서 원주를 빼고, 1934년 출간하였다.<sup>6)</sup>

고전 명리서들이 주로 십신과 신살, 격국을 사용하여 통변한 반면, 『적천수(滴天髓)』는 십신을 오행으로 축소하여 오행개념을 중시하고 음양의 구별에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잡다한 신살과 잡격을 배격하여<sup>7)</sup> 격국에 구애받지 않아 단지 명리만을 추구하여 통변이 간결해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滴天髓闡微』는 천지만물이 각기 중화(中和)의 조화를 이루듯 개인의 명운을 탐구하는 명리학의 중심철학도 중화사상(中和思想)과 같이한다. 『滴天髓闡微』가 자연의 이치와 순환의 차서(次序), 인과(因果) 등을 받아들이고 있음은 물론, 우리 몸의 생명력 유지를 포함한 자연계의 모든 생명활동은 끊임없는 中和作用의 결과임을 강조함으로써 中和思想이 명리의 기본원리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용신은 일주가 기뻐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외하는 신이다(用神者, 日主所喜, 始終依賴之神也)<sup>8)</sup> 사주 내의 용신은 처재자록(妻財子祿)과 궁통수요(窮通壽夭)의 모든 것이 용신 한 글자에 의해 정해진다(命內用神, 不特妻財子祿, 而窮通壽夭, 皆在用神一字定之)<sup>9)</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용신을 정하지 않고서는 길흉성패를 판단할 수가 없다. 任鐵樵는 너무 왕한 것은 마땅히 힘을 빼내야 하지만, 왕성함이 극에 이른 것은 마땅히 생조해야 하고, 너무 쇠약한 것은 마땅히 생조해야 하지만 극도로 쇠약한 것은 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전의 先賢들이 파악하지 못한 식신과 상관의 중요성

을 任鐵樵가 분명하게 밝혀 놓았고, 一行得氣格에서 인수보다 식상을 용신으로 정한다는 학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任鐵樵는 抑扶를 위주로 強弱을 중시하였고, 四從格(從旺, 從強, 從氣, 從勢)의 학설도 주장하였다. 『滴天髓闡微』는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와 일주의 억부만을 중심으로 한 간명법으로서 작용력이 약한 刑破害는 취용하지 않고 合沖만 적용하여 간명하였다. 명조와 운의 길흉에 대해 통변한 최초의 간명서이다.<sup>10)</sup>

### 3. 滴天髓闡微 「傷官論」 原文

#### 【滴天髓原文】

傷官見官果難辨 官有可見不可見。

상관(傷官)이 관(官)을 볼 때에는 분별하기가 어렵다. 상관이 관을 보면 옳을 때가 있고, 관을 만나서 옳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sup>11)</sup>

#### 【滴天髓增註】

“傷官者，竊命主之元神，既非善良，傷日干之貴氣，更肆縱橫，然善惡無常，但須駕馭，而英華發外，多主聰明，若見官之可否，須就原局權衡，其間作用，種種不同，不可執一而論也。有傷官用印，傷官用財，傷官用劫，傷官用傷，傷官用官，若傷官用財者，日主旺，傷官亦旺，宜用財，有比劫而可見官，無比劫有印綬，不可見官。”

“상관(傷官)은 명주의 원신을 훔쳐가니 본래 착하고 어질지 않다. 일간의 귀한 기운을 손상시키고 방자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선악은 한결 같지 않으니 모름지기 잘 다스리면 영화를 밖으로 나타낼 수 있고 총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官을 보느냐의 가부에 따라서 반드시 원국의 균형을 보아야 하는데 그 사이의 작용은 종류마다 다르니 한 가지에 집착해서 논하지 말아야한다. 상관용인(傷官用印), 상관용재(傷官用財), 상관용겁(傷官用劫), 상관용상(傷官用傷), 상관용관(傷官用官)등이 있다. 상관용재(傷官用財)는 일주가 왕하고 상관(傷官) 역시 왕하여 마땅히 재(財)를 용신하는 것인데, 비겁(比劫)이 있으면 관(官)을 보아도 되나 비겁(比劫)이 없고 인(印)이 있으면 관(官)을 보면 안 된다.”<sup>12)</sup>

6) 황보관, 『『滴天髓闡微』『何知章』에 관한 연구』, 국제대학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7.

7) 박영창, 『명리학적천수강해』, 글로벌사이버대학교, p.2.

8) 任鐵樵 增註, 『滴天髓闡微』, 武陵出版有限公司, 1999, pp.124-125.

9) 任鐵樵 增註, 위의 책, p.247.

10) 강홍서, 『『滴天髓闡微』의 명조 간법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92.

11) 『滴天髓闡微』『傷官』, 임철초 著, 김기승·김현덕 편역, 『滴天髓闡微』, 다산글방, 2017, p.324.

“日主弱，傷官旺，宜用印，可見官而不可見財，日主弱，傷官旺，無印綬，宜用比劫，喜見劫印，忌見財官，日主旺，無財官，宜用傷官，喜見財傷，忌見官印，日主旺，比劫多，財星衰，傷官輕，宜用官，喜見財官，忌見傷印。”

“일주가 약하고 상관(傷官)이 왕하면 인(印)을 용신으로 쓰는데 관(官)을 보는 것은 가하나 재(財)를 보는 것은 불가하다. 일주가 약하고 상관(傷官)이 왕하고 인(印)이 없으면 비겁(比劫)을 용신으로 하는데 비겁(比劫)과 인(印)을 보는 것은 기쁘나 재(財)와 관(官)을 보는 것은 꺼린다. 일주가 왕하고 재관(財官)이 없으면 상관(傷官)을 용신으로 하는데 재(財)와 상관(傷官)보는 것은 기뻐하고 관(官)과 인(印)을 꺼린다. 일주가 왕하고 비겁(比劫)도 많은데 재성(財星)이 쇠약하고 상관(傷官)이 가벼우면 관(官)이 용신인데 재(財)와 관(官)을 보는 것을 기뻐하나 상관(傷官)과 인(印)을 보는 것은 꺼린다.”<sup>12)</sup>

“所謂傷官見官，爲禍百端者，皆日主衰弱，用比劫幫身，見官則比劫受剋，所以有禍，若局中有印，見官不但無禍而且有福也。傷官用印，局內無財，運行印旺身旺之鄉，未有不顯貴者也，運行財旺傷旺之鄉，未有不貧賤者也。傷官用財，財星得氣，運逢財旺傷旺之鄉，未有不富厚者也。運逢印旺劫旺之地，未有不貧乏者也。傷官用劫，運逢印旺必貴，傷官用官，運逢財旺必富，傷官用傷，運遇財鄉，富而且貴，與用印用財者，不過官有高卑，財分厚薄耳，宜細推之。”

“이른바 상관(傷官)이 관(官)을 보면 온갖 재앙이 나타나는 것인데(所謂傷官見官，爲禍百端者) 이는 일주가 쇠약하여 비겁(比劫)을 용신으로 삼아 신(身)을 도와야 하는데 관(官)을 보게 되면 비겁(比劫)이 극을 당하게 되어 재앙이 있다 하는 것이다. 만약 사주 중에 인(印)이 있다면 관(官)을 보아도 재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다. 상관용인(傷官用印)일 때 사주에 재(財)가 없으면서 운이 인(印)이 왕하고 신왕하는 향이라면 귀(貴)가 나타나지 않는 법이 없다. 운이 재(財)가 왕하고 상관(傷官)이 왕하게 흐른다면 빈천(貧賤)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상관용재(傷官用財)인데 재성(財星)

이 기운을 얻어야 하니 운이 재(財)가 왕하고 상관(傷官)이 왕해지는 향이라면 부(富)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운에서 인(印)이 왕하고 겁재(劫財)가 왕하게 향한다면 빈핍하게 되지 않을 자가 없다. 상관용겁(傷官用劫)일 때 인(印)이 왕한 운을 만나면 반드시 귀(貴)하다. 상관용관(傷官用官)일 때 재(財)가 왕한 운을 만나면 반드시 부(富)를 얻을 것이다. 상관용상(傷官用傷)일 때 재(財)운을 만나면 부(富)뿐만 아니라 귀(貴)하다. 더불어 상관용인(傷官用印)과 상관용재(傷官用財)의 경우는 관(官)의 높고 낮음에 불과하고 재물이 많고 적음을 분류할 뿐이니 당연히 세밀하게 추리하는 것이 마땅하다.”<sup>14)</sup>

적천수 원문에서 상관(傷官)에 대한 첫마디는 “상관견관과난변(傷官見官果難辨)”이라 하였다. 상관(傷官)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난해하다는 말이다. 정관이라 함은 왕정국가 사회에서 국가의 중책을 맡게 되는 속성을 지는 인물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그것을 해치는 것이 상관(傷官)이니 어찌 소홀히 쉽게 풀이할 수가 있는 가라는 염려가 담겨져 있다. 상관격(傷官格)의 사주가 관을 보면 온갖 재앙이 발생한다는 상관견관위화백단(傷官見官爲禍百端)이라고 까지 하였다. 관을 보아서 좋은 경우와 관을 보아서 나쁜 경우가 있으니 사주원국 내에서 세력의 균형을 살펴 상관(傷官)이 관을 보아서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들은 종종 같지 않으니 한 가지에 집착하여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 4. 『淵海子平』, 『三命通會』, 『命理正宗』, 『傷官論』 考察

『적천수천미』를 저술한 임철초는 청대(清代)인물로 그의 주석과 사주사례들은 청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송·명대(宋·明代)와 청대(清代)의 사회적 분위기는 많은 변화를 나타내던 시기였으며, 송·명대의 명리학과 청대의 명리학은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적천수천미』의 상관론을 재해석하는 목적을 가진 이 연구에서 그 앞선 시대의 명리학 이론에 나타난 상관론을 살펴보는 것은 그 변화의 흐름을 읽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송·명대의 대표 명리고전인 서승(徐升)의

12) 『앞에 책』 「傷官」, 임철초 著, 김기승·김현덕 편역, 『滴天髓闡微』, 다산글방, 2017, p.324.

13) 『앞에 책』 「傷官」, 임철초 著, p.325.

14) 『앞에 책』 「傷官」, 임철초 著, p.325.

『연해자평(淵海子平)』, 만민영(萬民英)의 『삼명통회(三命通會)』, 장남(張楠)의 『명리정종(命理正宗)』에 나타난 상관론을 살펴볼 것이다.

#### 4.1 연해자평(淵海子平)

『연해자평(淵海子平)』은 서자평의 자평법을 계승하여 일간중심으로 생극관계를 분석하는 육신법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남송시대의 명리학자 서승(徐升)이 쓴 책이다.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이 출생한 연월일시의 干支 여덟 글자에 나타난 음양오행의 배합을 보고 그 사람의 부귀와 빈천, 성공과 길흉 등의 제반사항을 판단<sup>15)</sup>하는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저술이다.

상관(傷官)을 포함하여 십성(十星)의 이론이 정립된 명리교전은 서승의 『연해자평』을 그 시작으로 삼는다. 서승의 다른 저서인 『자평삼명통변연원』에서도 그 책의 첫 페이지에 ‘천간통변도(天干通辯圖)’를 실어 자평명리 이론에서 십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연해자평』 권2에서는 십성의 특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사주체 일주(日主)의 성정을 살피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고 있다.

『연해자평(淵海子平)』 권2 『논상관(論傷官)』에서 상관(傷官)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상관(傷官)은 그 경험(經驗)이 임기응변이 뛰어나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여 상진(傷盡)<sup>16)</sup>되어야 한다.<sup>17)</sup> “상관(傷官)이 건거(盡去)되지 못하였으면서 관성(官星)이 대운에서 승왕(乘旺)하면 그 화(禍)가 극심하여 형용(形容)하기 어렵고 상관(傷官)이 관성(官星)을 보면 화환(禍患)이 백(百)가지로 속출(續出)하게 된다.”<sup>18)</sup>

상관(傷官)이 있으면 사주에서 관성(官星)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바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만나면 자유분방한 기질로 관의 모든 통제를 깨뜨리고 관성(官星)의 귀기(貴氣)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정관(正官)은 귀물(貴物)이라서 刑, 沖, 破, 害를 극히 꺼리기 때문

이다.<sup>19)</sup> 벼슬을 가리키는 정관을 중요시 하던 시대에 정관(正官)은 상관(傷官)으로부터 극(剋)을 받는 것을 가장 꺼려했음을 알 수 있다.

“상관사주(傷官四柱)의 주인(主人)은 재예(才藝)가 많으나 오만(傲慢)하고 기고(氣高)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자신(自身)만 못하다는 기질(氣質)의 소유자이므로 귀인(貴人)이 탄기(憚忌)하는 바며 중인(衆人)이 증오한다.”<sup>20)</sup>

이는 상관인(傷官人)은 자신의 재주와 예술의 재능만 믿고 사물 보기를 거만하게 보고 항상 타인을 자신만 못하다고 생각하며 기고만장하여 귀인(貴人)이 한탄해하며 보통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한다하여 상관인(傷官人)의 방자함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상관(傷官)이 재주와 예술적 재능은 있다고 보았다.

상관(傷官)이란 “나의 기운을 설루(洩漏)하는 자이고 양(陽)이 음(陰)을 보고 음(陰)이 양(陽)을 만나는 자이니 음양(陰陽)의 배합(配合)은 되었으나 도설(盜洩)의 기(氣)”<sup>21)</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상관(傷官)은 식신(食神)과 같이 일간(日干)의 기운을 설(洩)하지만 상관(傷官)이 식신(食神)보다 설(洩)함이 강하여 흠쳐가는 기운으로 나타내고 있다.

“상관격에는 재성을 쓰는데 상관살(傷官殺)의 상신(傷身)하는 해(害)가 칠살(七殺)이나 다름없이 심(甚)하니 그 소험(所驗)이 여신(如神)함이 있다. 년주(年柱)에 상관(傷官)을 대동(帶同)하면 부모덕(父母德)이 온전(溫全)하기 어렵고 월주(月柱)에 상관(傷官)을 대동(帶同)하면 형제(兄弟)가 완전(完全)하지 않으며 시주(時柱)에 상관(傷官)이 있으면 자식이 완우(頑愚)하고 일지(日支) 상관(傷官)이면 처첩(妻妾)의 복(福)이 부전(不全)하다 여지(餘地)의 상관(傷官)은 상진(傷盡)한 즉 길(吉)하고 재성(財星)을 보면 좋다.”<sup>22)</sup>

상관(傷官)이 사주(四柱)내 년(年) 월(月) 일(日) 시

15) 김기승·나혁진, 『명리학사』, 다산글방, 2017, p.211.

16) 상진(傷盡)은 상하게 하여 모두 없어졌다는 의미와 상관(傷官)이 극에 달하여 상관태왕하다는 의미 2가지로 사용된다. 연해자평에서는 2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삼명통회에서는 후자의 의미(상관태왕)의 의미로만 쓰인다.

17) “傷官者, 其驗如神. 傷官務要傷盡.” 徐升 著, 『연해자평(淵海子平)』 論傷官 ; 심재열강술, 『연해자평정해』, 명문당, p.212.

18) “傷之不盡, 官來乘旺. 其禍不可勝言. 傷官見官, 爲禍百端.” 徐升, 『앞에 책』, p.213.

19) 배혜숙, 『『女命論 研究』 官星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36.

20) “傷官主人多才藝, 傲物氣高, 常以天下之人不如己. 而貴人亦憚之, 衆人亦惡之.” 徐升 著, 『앞에 책』, p.213.

21) “傷官者, 我生彼之謂也. 以陽見陰, 陰見陽, 亦名盜氣.” 徐升 著, 『앞에 책』, p.214.

22) “用傷官格局, 見財方可用. 傷官七殺, 甚如傷身七殺, 其驗如神. 年帶傷官, 父母不全; 月帶傷官, 兄弟不完; 時帶傷官, 子息爲頑; 日帶傷官, 妻妾不完. 其餘傷官, 務要傷盡則吉, 見財方可.” 徐升 著, 『앞에 책』, p.215.

(時)중 어느 위치(位置)에 있느냐에 따라 각각의 육친(六親)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도 설명하고 있다. 상관의 해(害)인 칠살(七殺)이 신(身)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며 해당하는 육친의 해(害)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년상(年上)에 상관(傷官)이 있으면 부귀(富貴)가 불구(不久)하고 월상(月上)에 상관(傷官)이 있으면 부모(父母)가 온전한 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일상(日上)에 상관(傷官)이 있으면 처첩(妻妾)이 완전(完全)하기 어려우며 시상(時上)에 상관(傷官)이 있으면 자손운(子孫運)이 없다. 세월(歲月)에 상관(傷官)과 겁재(劫財)가 있으면 빈천(貧賤)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일하(日下)에나 시중(時中)에 재관(財官)이 있으면 선빈후부(先貧後富)할 것이요, 세년(歲年)에 재관(財官)과 인수(印綬)가 있으면 부귀(富貴)한 집에서 생출(生出)할 것이다. 일시(日時)에 상관(傷官)과 겁재(劫財)가 있으면 선부(先富)하고 후빈(後貧)하며 자관(子官)을 상겁(傷劫)하여 만복(晚福)이 없다.<sup>23)</sup>

잡론구결(雜論口訣)에서도 일간(日干)을 주(主)로 삼고 어느 위치에 상관(傷官)이 있느냐를 보고 흉신(凶神)인 칠살(七殺)로 비유하고 일간이 극심하게 손상 당하며 덕(德)이 없다는 것이다.

“상관(傷官)이 관운(官運)을 만났을 때 재성(財星)이 도와서 구해(求解)하는 역할(役割)이 없다면 당주(堂主)가 반드시 큰 재앙(災殃)을 만난다. 그렇지 않으면 암매(暗昧)하고 악질(惡疾)에 걸려서 겨우 생명(生命)을 잔보(殘保)하거나 혹 관형(官刑)을 조난(遭難)하게 된다.”<sup>24)</sup>

악질(惡疾)에 걸리거나 관형(官刑)을 조난(遭難)한다는 것은 상관의 흉함을 말하며 상관이 관을 보면 상관견관(傷官見官)이라 하여 흉(凶)작용이 가중됨을 말하는 것이다. 더불어 잡론구결(雜論口訣)에서도 상관(傷官)이 관성(官星)을 보고 관살(官殺)이 혼잡(混雜)되면 호색(好色)하고 다음(多淫)할 것이요 처세(處世)하고 작사(作事)함이 소교(小巧)하고 빈천(貧賤)하다<sup>25)</sup>하여 이것 또한 상관살(傷官殺)의 상신(傷身)하는 해(害)가 칠살(七殺)이나 다름없으며 상관을 흉신으로 말하고 있다.

23) 雜論口訣, “年上傷官, 父母不全; 月上傷官, 兄弟不完; 日上傷官, 難爲妻妾; 時上傷官, 子孫無傳. 歲月傷官劫財, 生於貧賤之家; 日下時中有財官, 先貧後富. 歲月財官印綬, 生於富貴之家. 故曰時傷官劫財, 先富後貧, 傷損子息, 無晚福.” 徐升 著, 『앞에 책』, p.354.

24) “逢官運無財救, 必主大災, 不然主暗昧惡疾, 以殘其身, 或運遭官刑矣.” 徐升 著, 『앞에 책』, p.216.

25) 雜論口訣, “傷官見官, 官殺混雜, 爲人好色多淫, 作事小巧寒賤.” 徐升 著, 『앞에 책』, p.354.

상관격(傷官格)이 관성(官星)을 만나면 禍가 백가지로 생기니 疾病이 아니면 몸을 다치거나, 官의 송사가 있거나 投獄등의 禍를 면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극해하거나 喪妻하거나 실패하게 된다. 상관(傷官)이 관성(官星)을 만날 때 元命에도 관성이 있으면 厄이 중하고 元命에 관성(官星)이 없으면 가볍다. 재직자(在職者)가 상관(傷官)이 관성(官星)을 보면 귀양을 가거나 가벼우면 刑을 살 것이다.<sup>26)</sup>

상관(傷官)의 禍가 가벼우면 멀리 左遷되거나 귀양을 가게 되는 災殃이 있고 중한 경우 惡刑내지 死刑을 당하고 상관(傷官)이 가득차면 그 命을 보전하기가 어렵다.<sup>27)</sup>

상관이 관을 보면 나쁜 일들만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 글들에 따르면 상관의 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상관격(傷官格)의 흉(凶)함은 예언(例言)하기 조차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상관(傷官)은 상진(傷盡)되는 것이 제일기귀(第一奇貴)한 명조인마 상관격(傷官格)이 관성(官星)을 만나면 화(禍)가 곧 상수(相隨)한다. 상관격(傷官格)은 자신이 가장 총명(聰明)하고 훌륭한 줄만 알고 타인(他人)을 업신여기며 호승(好勝)하고 골육간(骨肉間)에 형상(刑傷)되는 화(禍)가 있고 비애(悲哀)한 일도 있다.<sup>28)</sup>

상관격(傷官格)이 남을 무시하고 스스로 가장 능력자(能力者)인 줄 자인(自認)하며 겁내지 않고 관성(官星)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우선 관(官)을 상하게 하는 것의 해로움과 해당하는 육친에게도 해(害)가 되는 걸 나타내고 있다. 日柱의 秀氣를 洩하므로 聰明함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대부분 官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하지만 상관격(傷官格)은 관성(官星)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관(傷官)이 상진(傷盡)함을 요하는 것이다.

또한 상관이 견관(見官)하게 되면 상관의 흉(凶)함이 가중 되어 그 禍의 작용이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여명(女命)이 상관을 만나면 극부(剋夫)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이는 지극한 원리다<sup>29)</sup>라는 것은 夫가 관성(官星)을

26) 雜論口訣, “傷官見官, 爲禍百端, 若非疾病傷軀, 必當官訟囚系, 子喪妻傷. 傷官見官, 元有者重, 元無者輕. 傷官見官, 重則遷徙, 輕則刑責.” 徐升 著, 『앞에 책』, p.354.

27) “輕者遠竄之災, 重則刑天之難. 傷官有戰, 其命難存.” 徐升 著, 『앞에 책』, p.483.

28) 傷官時訣, “傷官傷盡最爲奇, 若有傷官禍便隨, 恃已凌人心好勝, 刑傷骨肉更多悲.” 徐升 著, 『앞에 책』, p.484.

29) 『淵海子平』 「論劫財」 “女命見傷官多剋夫, 此極論也.”

뜻하기 때문에 건관(見官)하면 부성(夫星)을 극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상관(傷官)의 흉함은 많으나 정관의 흉함에 대한 설명은 극히 드물다.

#### 4.2 삼명통회(三命通會)

『삼명통회(三命通會)』는 만민영(萬民英)이 명만력(明萬曆) 戊寅 1578년에 발행한 명리학 백과사전이다. 만민영은 자(字)는 육오(育五)이고 호(號)는 육오산인(育五山人)이라 하였다. 삼명학과 자평학은 물론 서양점성술인 오성학에도 능통하였던 인물로 『삼명통회』 외에도 『성학대성』을 저술하였다.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예술전(藝術典)에 수록되기도 한 『삼명통회(三命通會)』는 총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명리학 원리에 관한 자료부터 고법과 신법사주의 이론과 유포되어져 있는 많은 비결 등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특히 3,500명의 실제 사주로 월과 시의 관계를 가지고 실고 있어 후대 명리학자들에게는 백과사전이라 불리며 활용되어 오고 있다.

『삼명통회』에서는 상관(傷官)이란 내가 남을 생(生)하는 것이다<sup>30)</sup>라고 말하고 있다. 상관을 설명하는 예시를 보면,

甲이 丁을 보고 乙은 丙을 보는 것이며 甲이 辛을 官으로 삼는데 丁火가 왕기(旺氣)를 타고 辛금을 극제하여 甲이 貴하게 되는 것을 보(輔)하지 않고 쓰지 못하게 한다하여 상관(傷官)이라 한다.

상관(傷官)이 왕(旺)하면 官을 극제하여 일간이 귀하게 되는 것을 막고 官을 쓰지 못하게 한다하여 상관(傷官)이라 한다는 것이다.

“경(經)<sup>31)</sup>에 이르기를 상관(傷官)이 官을 보면 화환백단(禍患百端)이다. 월지(月支)에 상관(傷官)이 있고 시상(時上)에 상관(傷官)이 있고 사주에 관성(官星)이 없어도 역시 상진(傷盡)하게 되나 다시 신왕(身旺) 재왕(財旺)하거나 혹은 인왕(印旺)하면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쓴 방(榜)에 이름을 올리는 일품귀인(一品貴人)이다. 이러한 격에 있는 사람은 다능(多能)하고 다재(多才)이며 예술적 기질이 많으나 거만하며 모험심(冒險心)이 있고 피를 쓰지만 사람됨이 웅졸하고 지나치게 기교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sup>32)</sup>

30) 『三命通會』 『論傷官』, “傷官者, 我生彼之謂.” 만민영(萬民英)著, 박일우 편저, 『삼명통회』, 명문당, p.207.

31) 『삼명통회』에서는 『연해자평』을 경(經)이라고 칭한다.

32) “傷官見官, 禍患百端是也. 又有月支傷官, 時上傷官, 四柱無官星, 亦謂傷盡. 更身旺, 財旺或印旺, 名標金榜, 一品貴人. 此格主多

상관이 관을 보면 화환(禍患)이 끝이 없다 하였고, 자신이 신왕(身旺)해야 강하게 설기(洩氣)되는 상관(傷官)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은 역시 악(惡)을 배푸는 것이며 財(財)가 없으면 빈궁(貧窮)하지만 財가 있어서 財氣를 생하는 자는 食神 傷官이 되고 財氣를 도적질해가는 七殺 官星이니 상관(傷官)은 財를 보기를 필요로 하지만 官을 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sup>33)</sup>

상관(傷官)은 선(善)하지 않고 악(惡)을 배푸다 하였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재기(財氣)를 도적질해가는 칠살(七殺)로 비유하고 있다. 상관은 재(財)가 있어 상관생재를 이루는 것이 가장 유리한 형국(形局)을 이룬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주에 관성(官星)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한 점의 財도 없다면 비록 총명하고 기교를 부려도 허명(虛名) 허리(虛利)에 불과하다.<sup>34)</sup> 사주상관(四柱傷官)은 오직 年干상관(傷官)이 가장 중하다고 말하며 福이 터전에 傷함을 받으니 중신토록 영향을 받고 만약 月支에서 制하지 못하고 다시 七殺이 있으면 몸을 傷한다.”<sup>35)</sup>

“상관(傷官)이 상진(傷盡)이니 다예(多藝) 다능(多能)하여 욕심이 있고 오만하며 속이는 것을 잘하며 사람의 뜻을 업신여기고 관골(顛骨)이 튀어나오고 눈이 높고 눈썹이 크게 붙어 있다.”<sup>36)</sup> 통명부에는 “상관(傷官)을 거듭 보면 몸은 반드시 부지런하나 어려운 고통이 있고 또한 상관(傷官)이 많고 신왕하나 의탁할 곳이 없으며 승도(僧道)나 예술가의 명이다.”<sup>37)</sup>

“년에 상관(傷官)을 대동하면 부모가 온전치 못하고, 月에 상관(傷官)을 대동하면 형제가 온전치 못하고 時에 상관(傷官)을 대동하면 자식이 흉하고 안고할 것이며, 日에

材藝, 傲物氣高, 心險無忌憚, 多謀少遂, 弄巧成拙, 常以天下之人不如己” 만민영 著, 『앞에 책』, p.208.

33) “而人亦憚之惡之 傷官無財主貧窮, 蓋生財氣者即食神傷官, 盜財氣者即七煞官星, 所以傷官要見財, 不要見官.” 만민영 著, 『앞에 책』, p.208.

34) “既無官星, 而柱卻無一點財可恃, 雖聰明機巧, 不過虛名虛利.” 만민영 著, 『앞에 책』, p.208.

35) “四柱傷官, 惟年干傷官最重, 謂之福基受傷, 終身不可除去, 若月支更有, 甚於傷身七煞.” 萬民英, 三命通會, 박일우 편저, 명문당, p.212.

36) 《相心賦》云: “傷官傷盡, 多藝多能, 使心機而傲物氣高, 多謔詐而侮人志大, 顛高骨峻, 眼大眉粗.” 만민영 著, 『앞에 책』, p.212.

37) 《通明賦》云: “重見傷官, 身必辛勤勞苦. 傷官多而身旺無依, 定爲僧道藝術爲士.” 만민영 著, 『앞에 책』, p.212.

상관(傷官)을 대동하면 처첩이 어질지 못하다 하였다.”<sup>38)</sup>

연월일시(年月日時) 중 어떤 궁위(宮位)에 상관(傷官)이 나타나는데 따라 부연하고 있는 육친통변은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의 상관의 위치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 4.3 명리정종(命理正宗)

장남(張楠)의 『명리정종(命理正宗)』은 일명 『신봉통고(神峯通考)』 혹은 『신봉벽류(神峯關謬)』라고도 불리는데, 전체 이름은 『신봉통고 벽류 명리정종』이었다. 현재 항간에 널리 퍼져 있는 『명리정종』은 청(淸) 도광(道光) 경인년(庚寅年: 1830년)의 간행본이며 전부 6권이다. 책 원명에서 ‘벽류(辟謬) 오류를 허물다’라고 적힌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리학의 여러 가지 오류들을 정리하고 수정하고자 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저자 장남은 자(字)가 신봉(神峯)이고 호(號)가 서계일수(西溪逸叟)이며, 명대(明代)에 활동하였으며 임천(臨川, 지금의 강서성 임천현(臨川縣)) 사람이었다. 장남의 평생 행적은 알려져 있는 것이 없다. 장남(張楠)은 『연해자평(淵海子平)』의 학설을 수용하고 자평학의 이론을 일부분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정설(動靜說), 개두설(蓋頭說), 병약설(病藥說) 등이 그러하다. 『명리정종』에 언급된 상관론은 다음과 같다.

“상관(傷官)은 일음(一陰)이 일양(一陽)의 설자(洩者)를 만나면 상관(傷官)이고 아신(我身)의 혈기(血氣)를 도적(盜賊)하고 빼앗아 가는 상대물(相對物)에 해당(該當)한다. 관성(官星)은 관청(官廳)의 관(官)과 같은 의미이니 인간생활의 망동(妄動)을 법규(法規)로서 규제(規制)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데 상관(傷官)은 그 관성(官星)을 상살(傷殺)하고 관명(官命)에 불복(不服)하는 자이니 상관(上官)을 시살(弑殺)함과 같고 강적(強賊)을 화민(化民)함과 같다.”<sup>39)</sup>

상관(傷官)은 일간이 음(陰)일 때 양(陽)의 설기하는 기운을 만나면 상관(傷官)이라하고 내 기운을 도적질하여 빼앗아 가는 상대로 나타내었다. 관성(官星)은 관청(官廳)의 관(官)과 같으며 잘못된 일들을 규제하려는 일을 상

관(傷官)이 상하게 하고 관의 명령도 듣지 않고 윗사람을 죽임과 같으니 백성들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이라 하였다.

상관격자(傷官格者)는 관성(官星)을 만나지 말 것이니 만일 다시 관성(官星)을 만난다면 관청(官廳)의 장관(長官)을 타상(打傷)하는 격인바 관청(官廳)에서 어찌 방치해두겠는가, 상관(傷官)이 관성(官星)을 만나면 백단(百端)으로 화(禍)를 만난다고 하였으며 상관(傷官)이 상진(傷盡)하면 최기(最奇)한 명(命)이요, 상극(傷剋)함이 많아도 불선(不宣)하니 이를 더욱 두려워 한다.<sup>40)</sup>

상관격자(傷官格者)는 관성을 만나지 말아야하며 관성을 다시 만나면 관의 우두머리를 다치게하며 해로움이 백가지로 만난다하니 그 흉함이 많다는 것이고 상관(傷官)이 상진하면 크게 기이한 명(命)이요, 극이 많아도 베풀지를 않으니 이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다.

상관 명조자(命造者)는 오기(傲氣)가 많음은 어떤 까닭인가? 관성(官星)이란 관부(官府)인데 상관(傷官)은 관(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상살(傷殺)하므로 나를 방임(放任)하고 규제(規制)하지 않으니 오물(傲物)하지 않으며 참람(僭驕)하지 않겠느냐? 총명(聰明)하다 함은 어쩔 녹고(緣故)인가? 일주의 기운을 설(洩)하고 그 정영(精英)을 파현(破現)하여 그 영화(英華)가 외부에 발산(發散)됨이 상관격이므로 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41)</sup>

상관격자(傷官格者)는 거만하고 업신여기는 기운이 많아서, 관성(官星)이란 관부(官府)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곳인데 상관(傷官)은 그 관을 두려워 하지 않고 오히려 상하게 하고 없애려 하며 맡은 일을 못하게 내쳐버리고 규정을 안 지키고 무리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함이 넘친다 하였다. 총명하다함은 일주의 기운을 빼내어 그 기운을 남김없이 나타내니 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관(傷官)을 흉하게도 보면서 총명하다 하고 있다.

년상(年上)에 상관(傷官)이면 부모가 부전(不全)하고 월주(月柱)에 상관(傷官)이 있으면 형제가 부완(不完)하며, 시주(時柱)에 상관(傷官)이면 자식이 흉완(凶頑)스럽고 일지(日支)에 상관(傷官)이면 처첩(妻妾)이

38) “年帶傷官，父母不全，月帶傷官，兄弟不完，時整傷官，子息凶頑，日帶傷官，妻妾不賢。” 만민영 著, 『앞에 책』, p.215.

39) “一陰一陽謂 傷官，盜我血氣之物。蓋人之身，以官星爲管我之官，如府縣官之類也。出入動作，皆要循守規矩，不敢妄爲。今則傷官者，則是傷殺其官，不服官管，如弑殺上官之類，則爲強賊化外之民。” 張楠 著, 심계열 編, 『명리정종정해』, 명문당, p.149.

40) “如此格，就要不見官星，如再見官星，如再見官星，就如打府縣官者，又再去府縣官，則官肯放汝乎。『傷官見官，爲禍百端。』傷官傷盡最爲奇，尤恐傷多反不宜。” 장남 著, 『앞에 책』, p.149.

41) “然傷官格人多傲氣者何乎也，蓋人用官，爲管我之官。我則不畏其官而傷之，是肯放我爲非，豈不是好傲僭者乎，又多聰明者何也，蓋日主之氣破，洩其精英，是其英華發於外也，故多聰明。” 장남 著, 『앞에 책』, p.152.



부완(不完)하다.<sup>42)</sup>

『명리정중』에서도 상관의 궁위에 따른 해석은 『연해자평』의 설명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칠살(傷官七殺)은 상신(傷身)하는 정도가 칠살(七殺)만 있을 때 우심(尤甚)하니 그 증험(證驗)이 신(神)과 같은 바가 있다.<sup>43)</sup>

여명상관격(女命傷官格)은 대기(大忌)하는 바이다. 여명(女命)이 상관(傷官)을 범(犯)하면 형부(刑夫)한다.<sup>44)</sup>

상관(傷官)을 칠살(七殺)이라 칭하며 몸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더욱 더 심하고 불가사의하다 하였고, 여명(女命)의 상관격자(傷官格者)는 크게 꺼리는데 여명(女命)이 상관(傷官)을 가지면 관(官)은 관부(官府)이며 남편을 뜻하는데 그 귀하게 대한 관(官)인 남편을 극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상관격(傷官格)은 당주(當主)가 재조(才操)는 높으나 기질(氣質)이 오만(傲慢)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이 자기만 못한 줄 알고 속임수와 멸시하는 태도가 있으니 중인(衆人)이 미워하고 귀인이 기탄(忌憚)하는 바이다. 고가(古歌)에 상관격(傷官格)은 그 뜻이 왕후(王候)를 모오(侮傲)하고 호승(好勝)하며 견강(堅強)하며 두령(頭領)이 되기를 좋아한다.<sup>45)</sup>

상관격자는 재주를 부리는 기술이 높으나 기질이 거만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자기만 못하다 생각하고 속임수를 잘 쓰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백성들이 미워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린다 하였고,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상관격(傷官格)은 관청(官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며 거만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며 힘이 있어 튼튼하고 우두머리가 되려한다는 것이다.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는 “상관(傷官)이란 나의 기운을 설루(洩漏)하는 자이고 도설(盜洩)의 기(氣)이며, 재예(才藝)가 많으나 오만(傲慢)하고 기고(氣高)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자신(自身)만 못하다는 기질(氣質)의 소유자”라고 표현하였다. 삼명통회(三命通會)에서는 “상관(傷官)이란 내가 남을 생하는 것이고 악을 베푸는 것이며

다능(多能)하고 다재(多才)이며 예술적 기질이 많으나 거만하며 모험심(冒險心)이 있고 피를 쓰지만 사람됨이 옹졸하고 지나치게 기교를 부리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명리정중은 “아신(我身)의 혈기(血氣)를 도적(盜賊)하고 빼앗아 가는 상대물(相對物)에 해당(該當)하고, 재조(才操)는 높으나 기질(氣質)이 오만(傲慢)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이 자기만 못한 줄 알고 속임수와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사주첩경은 “상관(傷官)은 글자 그대로 관(官)을 극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의 기(氣)가 너무 설기(洩氣)당함을 염려하여 인색(吝嗇)하여 허세부리기를 좋아한다”고 상관에 대해 설명한다.

## 5. 현대의 상관론

상관격(傷官格)은 월지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상관(傷官)일 때와 주중의 상관이 유기하거나 또는 상관용신일 때 성립한다. 상관(傷官)은 본래 일주의 기(氣)를 도기(盜氣)하기 때문에 신왕을 요하며 그 중에서도 인성과 균형을 이루면 인성이 상관을 극하여 상관의 흉(凶)한 작용을 제해하니 길하다. 상관격(傷官格)의 특징은 월지가 일간의 상관(傷官)이 되어야 하며, 목(木)일간에서 화(火)는 木火傷官, 화(火)일간에서 토(土)는 火土傷官, 토(土)일간에서 금(金)은 土金傷官, 금(金)일간에서 수(水)는 金水傷官 수(水)일간에서 목(木)은 水木傷官이라고 한다.

근묘화실(根苗花實)로 비유되는 궁위론, 즉 사주 4기둥의 상징성에 대한 가장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한 김기승의 『과학명리』를 보면 궁위(宮位)라는 고전용어 대신 공간(空間)이라는 더 의미전달이 쉬운 용어를 선택하였고, 십성이 일간을 제외한 7개의 위치(공간)에 따라 각각 다른 심리성과 사회성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십성의 작용을 ‘십성의 공간심리’라고 칭하였다. 그 공간에 놓인 십성이 격과 희신에 해당하고 건실하다면 자신에게 보다 능률적인 공간심리로 나타날 것이며 기신에 해당한다면 반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연(年)의 간지(干支)를 사회공간과 의지공간으로, 월(月)의 간지(干支)를 목적공간과 안정공간으로, 일(日)의 간지(干支)를 자아공간과 현실공간으로 시(時)의 간지(干支)를 목표공간과 미래공간이라고 지칭하였다.

위치(공간)에 따른 각각 십성의 사회성은 공간심리의

42) “年帶傷官，父母不全；月帶傷官，兄弟不完；時帶傷官，子息凶頑；日帶傷官，妻妾不免。” 장남 저, 『앞에 책』, p.157.

43) “傷官七殺，甚於傷身七殺，其驗如神。” 장남 저, 『앞에 책』, p.157.

44) “女命傷官，格中大忌。女犯傷官同刑夫。” 장남 저, 『앞에 책』, p.158.

45) “傷官之格，主人才高氣傲，常以天下之人不如己，多詞侮人，衆人多惡之，而貴人亦憚這。故《古歌》云：‘傷官其志傲王侯，好勝場中強出頭。’” 장남 저, 『앞에 책』, p.158.

확대 혹은 더욱 디테일해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의 상관의 심리성이 영리한 활동과 보편성의 적대적심리이며 사회성은 항상 언행의 예리함으로 주위를 긴장시키고, 사건과 사물의 다른면을 보는 영리함도 가진 소유자로 특이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여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표현하여 고전 궁위론을 1단계 심리성으로 2단계 사회성으로 확장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현대는 상관을 잘 쓰면 발복하는 시대로 쓰임이 좋으면 관습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혁명가의 기질로 방송인, 정치인, 지식인 등의 분야에 필요한 인재(人才)로써 활력소가 되는 에너지임을 확인하고 가교역할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 6. 결론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에서는 상관(傷官)을 상관견관위화백단(傷官見官爲禍百端)으로 상관(傷官)이 견관(見官)하면 재앙(災殃)이 백(百)가지 일어나며,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는 나의 기운을 설루(洩漏)하는 자이고 도설(盜洩)의 기(氣), 『삼명통회(三命通會)』에서는 내가 남을 생(生)하는 것이고 악(惡)을 베푸는 것, 『명리정종(命理正宗)』에서는 아신(我身)의 혈기(血氣)를 도적(盜賊)하고 빼앗아 가는 상대물(相對物)에 해당(該當)한 다 하였으며, 비록 관(官)을 극하고 경거망동하는 면이 있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되었다. 그러므로 해석이나 적용이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 봉건적인 예법과 도덕 때문에 한 가지 관(官) 위주의 생각만 고수하게 되었고 또한 유교적인 관념 때문에 남존여비시대의 상황 속에서 본 상관(傷官)은 시대에 따른 재해석이 필요하였다.

현대와 달리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관직에 나아가는 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봉건적인 예법과 도덕 때문에 오로지 관(官)위주의 생각만 고수하고 바라 본 상관(傷官)을 과거에는 견관(見官)하면 재앙(災殃)이 백(百)가지나 일어난다고 하였지만 현대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중심이었던 관(官)위주가 아니며 상관(傷官)의 창의력은 새로운 세상을 펼치고 싶은 흥미진진한 호기심이다. 또한 자신의 표현에 심취하고 상대를 설득할 능력을 겸비하였으며

순간 발상이 뛰어나 예능적 방면에 소질을 보인다. 발명가적 기질로, 창의성과 모방능력을 구사하며 설득과 비판의 대명사로 논설과 논평에 능한 언어적 표현능력이 발달한 편이다. 흥과 성공의 기준이 현대와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과거의 상관과 현대에서의 상관 해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하기 힘든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활동,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일들, 창의성을 지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현대적 상관(傷官)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창조하여 부(富)를 이루고 귀(貴)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시대적 배경에 따른 상관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고전의 이론을 적용시키면서도 과거와 현대의 상관론에 대하여 현대 명조의 구조에 대한 활용방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萬民英 著, 『三命通會』,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2009.
- [2] 徐升 編著, 『淵海子平評註』,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2006.
- [3]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真詮評註』,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2009.
- [4] 任鐵樵 增註, 袁樹珊 選輯, 『適天髓闡微』,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 [5] 張楠 著, 『命理正宗-神峰通考』, 台北:進源文化事業有限公司, 2012.
- [6] 김기승·김현덕, 『적천수천미』, 다산글방, 2017.
- [7] 김기승, 『과학명리』, 서울: 다산글방, 2016.
- [8] 김기승·나혁진, 『명리학사』, 다산글방, 2017.
- [9] 만민영 저, 박일우 편저, 『삼명통회』, 명문당, 1973.
- [10] 만민영 지음, 김이남, 이명산 공역, 『삼명통회』, 서울: 삼하출판사, 2011.
- [11] 서승저, 심재열 편저, 『연해자평정해』, 명문당, 1966.
- [12] 임철초 증주, 원수산 선집, 김동규 역, 『적천수천미』, 명문당, 2002.

이 보 영 (Yi, Bo Young)



- 2018년 3월~현재 : 경기대평생교육원 명리학교수
- 2021년 1월~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박사과정)
- 2018년 8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동양학석사)
- 관심분야 : 명리학, 진로상담, 교육
- E-Mail : qhdud1959@naver.com

김 기 승 (Kim, Ki-Seung)



- 2012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2005년 3월~2011년 4월 : KICU대학원 교수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졸업 (직업학박사)
- 2011년 2월 : KICU대학원졸업(교육학박사)
- 관심분야 : 진로교육, 선천적성, 직업상담, 명리학
- E-Mail : kbs4984@hanmail.net